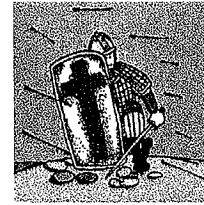


## 2002년 " 그때 그 광고 "

- 1.<1월 6일> 수요일예배방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 
\* 이웃교회에 찾아가 은혜를 체험토록 하기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수요일예배방. 4주동안은 좀 길다는 여론에 2003년에는 2주만 갖기로 하였습니다. "저는 4주도 짧기만 하던데..."
- 2.<1월 27일> 오늘 3개교회 '족구,배구대회 '(Northshore Event Centre)  
\*선수들의 유니폼까지 빌려온 이재영 집사님, 깜작놀랄정도로 준비해온 음식, 연전연승의 경기.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
\*1회때는 우리교회가 배구팀 구성하기 조차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
- 3.<1월 27일> 수요일예배 후 (30일) 향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 
\*장로 4인, 안수집사 4인, 권사 5인이 선출되었습니다. 향존직분자들의 섬기는 모습에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봅니다
- 4.<2월 10일> 교회헌금함이 사라졌습니다  
\*기도후 눈떠보니 헌금함이.... 이후부터 건장한 윤\*\* 집사님의 좌석이 헌금함 옆이 되었습니다
- 5.<3월 10일> 월요일부터 Hall 화장실 보수를 교우들의 자원봉사로 하려합니다.  
시간이 허락하신는 교우들의 자원봉사를 바랍니다  
\*화장실에서 차 마실수 있을 정도로 바꾸겠다는 마음이었었는데 정말 마치는 날 여자 화장실에서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셨습니다.  
\*우리교회 다녀가신 분 얘기를 빌어 그전 화장실 모습을 표현하면 "화장실 때문에 갈보리교회 못오겠다".  
얼마전 Fiji 교인은 화장실 바닥에 애기를 눕히고 기저귀를 갈아 채우더군요.
- 6.<3월 31일> "저희 결혼해요♡": 한 건 집사. 나 진 성도 화요일(4월 2일) 저녁 5시  
\*우리 교회 창립예배 유일한 교우며 총각집사였던 한 건 집사님의 결혼.  
4월 23일엔 미국으로 부부가 떠났지만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.
- 7.<4월 14일> 월드컵 성공기원(?) 친선축구시합(주님의교회). 오후 3:30 Sunnynook  
\*그래서인지 한국축구의 화려한 4강이 이루어졌습니다
- 8.<5월 5일> 추워지는 겨울, 의자에 방석이 준비되지 않아 더 추위를 느낍니다.  
방석이 준비 될 때까지 가정에서 방석 1개씩 기증바랍니다  
\*그사이 히터와 준비된 방석으로 올 한해는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
- 9.<6월 30일> 가족과 함께 하는 "응답송"  
\*권용일 집사님 가정을 시작으로 가족찬송을 시작하였습니다. 옛 사진을 보며 알게 되고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
- 10.<7월 14일> 오래 된 것 같은 느낌도, 벌써 3년인가 하는 느낌도 가지고 오늘 창립 3주년 주일을 맞습니다. 오늘 임직받습니다(향존직) 오늘은 "성문밖 주일"로 지킵니다  
\*임직자들께서 손수 손으로 쓴 성경, 헌금을 교우들께서 직접 다른곳으로 보내는 성문밖주일 헌금...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
- 11.< 8월 11일> 김동호 목사(높은 뜻 승의교회) 1일 사경회  
\*아광웃과 손전등까지 동원하여 주차안내를 하신 2남선교회원들의 활약이 아직도 인상적으로 남아있습니다  
\*갑작스러운 방문으로 갖게 된 사경회였지만 많은 분들이 은혜를 체험한 밤이었습니다
- 12.<8월 25일> 제1남선교회 낚시대회 :금주 토요일에 갖습니다"세상에서 가장 큰

<b>교회목표</b> <b>하나님만이</b> <b>삶과 교회의</b> <b>주인</b>	<b>'2002년 교회생활"가족으로 오신 예수님"</b> <b>갈보리 교회</b> <i>Calvary Presbyterian Church</i>	<b>교회생활지침</b> 누가 10:37 *자원함 -섬김과 봉사 *의명성 -명예
송구영신예배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2년 12월 31일
☎520-9464 71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)		calvary.ca.to

### 그것 때문에 감사



2차 세계대전 때 군인인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은 부부가 있었습니다. 아픔을 딛고 교회에 나온 부부는 하나님께 거금을 바쳤습니다.

"좋은 아들을 이십 년 동안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.

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."

그것을 보고 다른 집 남편이 말했습니다.

"여보,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감사헌금 합시다."

아내가 말했습니다.

"아니 우리 애는 아직 살아 있지 않아요!"

"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요."

들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. 아직 온몸의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,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음을,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 나갈 삶이 있음을.....

열이면 열 사람 모두 다 일이 '잘되어야 감사하고 보통 때나 안 될 때는 불평합니다.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잠깐이고 곧 마음이 우쭐해지고 느긋해지는 게 인간입니다. 그래서 조금만 살펴보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요, 명예요, 욕심임이 드러납니다.

올 한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

\*\*\*\*\*

고기는 낚시꾼이 잡다 놓친 고기입니다"

\*그러나 정말 많이 잡아올린 낚시 대회였습니다

13.<9월 15일> 수재 당한 고국을 위한 사랑의 마음..우리교회에서도 미약하나마 고국의 아픔에 위로의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(\$2000)

\*아직도 완전하게 회복되지않았을 텐데 추운 겨울이 걱정됩니다

14.<11월 3일> 어제 교회당 청소애 여러 교우들께서 자원봉사하셔서 수북히 쌓였던 먼지를 닦고 치웠습니다. 청소후 영양탕으로...

15.<6월 30일>안내위원 명단에 윤행권,신영화 집사님 부부를 신영화 집사님으로 <11월 17일> 앞뒤의 방향이 거꾸로 인쇄된 주보

<12월 22일> 15일날짜로 만들어진 주보 등. 안그런척 했지만 등에 식은 땀이 흐르는실수였습니다. 그래도 너그럽게 보아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릴뿐입니다. 한국에서 같았으면 아마 자리 보존이 어려웠을 겁니다.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.

# 송구영신(送舊迎新) 예배

성가대와 함께

영광송  
Gloria

"Calvary"

다 같이

참회의 기도  
Confession Pray

용서의 선언  
Proclaim

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 
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

인도자

\*찬송  
Hymn

459장

다 같이

\*성서교독  
Response Reading

53(계시록 21)

\*신앙고백  
Apostle's Creed

사도신경

찬송  
Hymn

543장

다 같이

기도  
Prayer

성경봉독  
Scripture Reading

전도서 12:1-8

인도자

성가대 찬양  
Choir

나무십자가성가대

설교  
Sermon

'세월을 귀하게'

김성국 목사

<감사와 결단 기도>

중창

내 평생에 가는 길

여성성가대원

1)\*믿음을 지켜 주심에 감사

\*더 성숙한 믿음위해 노력하는 결단

연주

저 높은 곳을 향하여

정상호

2)\*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

\*가족을 위한 기도

\*직장, 사업을 위한 기도

독창

이 세상 어딜 가든지

윤형권 집사

3)\*교회를 주심에 감사

\*건강한 교회되는 내년도도록

중창

만세반석 열리니

남성성가대원

4)교우를 위한 기도. 병환/비자/사업

독창

거룩한 성

신경화 집사

5) \*고국위한 기도 고국의 가족을 위한 기도

\*기도가 필요한 이웃을 위한 기도

찬송

'248장'

다 같이

Hymn

(마지막절은 일어서서)

축도  
Benediction

김성국 목사

<예배 후 Hall에서 군고구마를 나누며 풍성한 덕담으로 새해인사를 나누겠습니다>



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



### <작한 시인들>

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

- 이해인-

나는 문득  
외딴 마을의  
빈집이 되고 싶다

누군가 이사 오길 기다리며  
오랫동안 향기를 묵혀둔  
쓸쓸하지만 즐거운 빈집

깔끔하고 단정해도  
까다롭지 않아 넉넉하고  
하늘과 별이 잘 보이는  
한 채의 빈집

어느 날  
문을 열고 들어올 주인이  
'음...마음에 드는데...'  
하고 나직이 속삭이며 미소지어 줄  
깨끗하고 아름다운 빈집이 되고 싶다

열심히 살아온 길, 넉넉함에서 가질 수 없는 부족함의 긴장감이 우리를 정갈하게 다듬어 주었습니다. 돌아보니 집안 구석구석에 안 보이던 것 몇가지가 늘어난 것보다 마음속에 전에는 없던 것이 늘어나 있음을 봅니다. 상처받음과 미움, 더 갖고 싶음과 욕심...

그러나 욕심과 미움도 없이 누가 보아주지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저 혼자 아름다움을 조용히 안고 있는 들꽃이 있기에 들판이 아름다움을 깨닫습니다.

여백으로 인해 아름다운 동양화처럼 우리들 마음 빈 자리에도 천국의 그림이 하나씩 그려져 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

